

## 시설 딸기포장에서 칠레이리응애(*Phytoseiulus persimilis*)에 의한 점박이응애의 방제 효과

김용현, 김정환, 한만위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딸기 시설 재배 농가포장에 점박이응애 발생 정도별 칠레이리응애를 투입하고 점박이응애의 방제효과를 조사하였다. 점박이응애 밀도가 낮았을 때 칠레이리응애를 반축성재배 딸기에서  $m^2$ 당 1차 2월27일 3마리, 2차 3월3일 3마리, 3차 3월10일 1.5마리씩 투입한 결과 5월5일까지 점박이응애 방제효과가 있었고, 축성재배 딸기에서  $m^2$ 당 1차 12월27일 3마리, 2차 1월27일 3마리씩 투입하여 점박이응애의 밀도를 5월초까지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점박이응애 밀도가 잎 당 5.5마리로 높았을 때는 칠레이리응애에 의한 점박이응애 밀도 억제 효과는 없었다. 점박이응애 밀도가 높았을 때 아바멕틴을 살포하여 점박이응애 밀도를 낮춘 다음 칠레이리응애를 투입하면 5월 초까지 점박이응애 밀도를 낮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 칠레이리응애를  $m^2$ 당 2월27일 1.5마리, 3월10일 3마리씩 투입한 다음 살비제 페나지퀸액상수화제를 살포한 결과 점박이응애 밀도는 오히려 4월7일 13.8마리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농약에 의해 칠레이리응애가 죽고, 점박이응애의 약제저항성 유발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살아 남아 증식된 것으로 생각된다.